

'한·미 금리 역전'...국내 경제 불확실성 우려

美 최악 인플레이션이 인상 원인 정부 "국내 금융 영향 제한적일 것" 한국은행 8월 금리 인상폭 주목



▲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뉴시스

◀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AP 뉴시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8일(한국시간) 6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아진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됐다. 특히 3월 0.25%p의 베이비스텝, 5월 0.5%p의 빅스텝, 6월과 7월 각각 0.75%p의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2.25%p나 빠르게 올린만큼, 글로벌 증시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시장은 '안도렐리'

미국 연준은 6월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50~1.75%에서 연 2.25~2.50%로 크게 상승했고, 국내 기준금리(연 2.25%)보다 상당 기준으로 0.25%p 높아졌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한 데에는 최악으로 치달은 인플레이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급등해 1980년 11월 이후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물가상승 압력

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9월 열리는 다음번 FOMC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듯 파월 의장이 시장에 대해 안정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은 '안도렐리'를 보였다. 당초 물가상승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1.00%p 올리는 울트라스텝의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자이언트스텝에 머물러 다행이라는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날 미국 뉴욕증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36.05p(1.37%) 오른 3만2197.5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02.56p(2.62%) 상승한 4023.61, 나스닥 지수는 469.85p(4.06%) 급등한 1만2032.42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74p(0.82%) 오른

2435.27, 코스닥은 2.62p(0.33%) 오른 798.32에 마감했다.

●국내 경제 악순환 우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본유출, 물가 급등, 경기침체 우려 등이 국내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상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국내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 이를 운용할 유인이 사라지고, 자금을 대거 빼낼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다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무역수지 악화를 불러오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높일 수 있다. 또 통화당국은 고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작용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

능성은 낮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 "과거 세 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기에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오히려 순유입을 유지했다"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관심은 13일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8월 기준금리 인상폭으로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미금리 역전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인 만큼 한국은행의 두 번 연속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내 물가상승세와 환율 급등 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빅스텝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스타벅스, 굿즈에 발암물질 검출 인정 새 제작 굿즈 아니면 3만원 적립 보상

제품 개봉 전 외피 폼알데하이드 459mg/kg 검출



스타벅스가 서머캐리백 굿즈(사진)에서 발암물질이 일부 검출된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22일 국가 공인 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개봉 전 제품의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의 외피에서 평균 271mg/kg, 내피에서 평균 22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체에 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mg/kg 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mg/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회사 측은 "스타벅스를 사랑해 주신 수많은 고객에게 큰 우려와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고객 보상안도 내놓았다. 여름 'e프리카시' 이벤트 기간 중 17개의 e스티커 적립 후 서머 캐리백으로 교환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새롭게 제작한 굿즈를 제공한다. 고객이 새 굿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온라인상으로 일괄 적립해 준다. 스타벅스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스타벅스 e기프트카드 3만 원권을 발송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FITI시험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서머 캐리백에 대한 시험을 했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정정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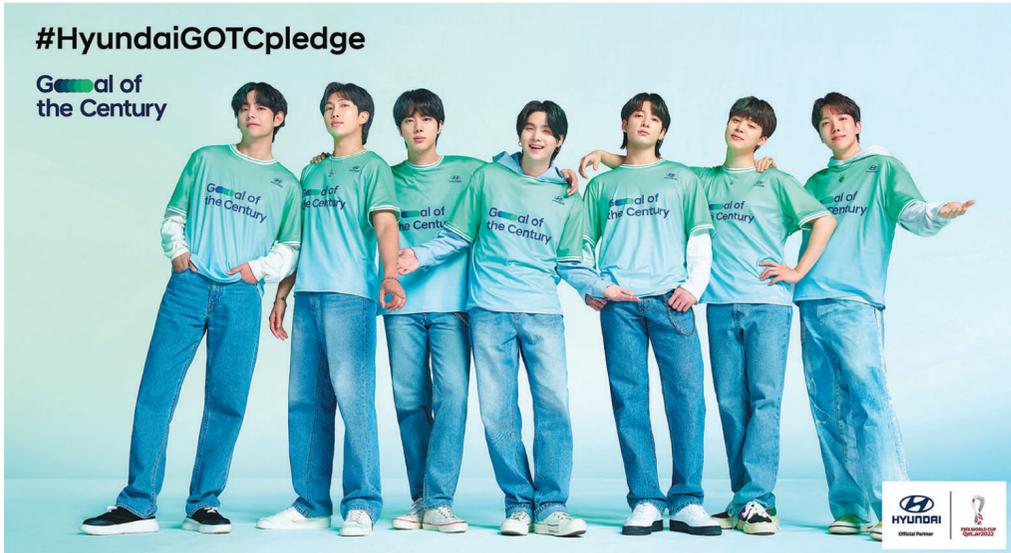
SKT '우주패스' vs LG유플러스 '유독' 이동통신사 구독 서비스 경쟁 본격화

이동통신 기업들의 구독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한다. 지난해 8월 'T우주'를 론칭한 SK텔레콤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28일에는 e커머스 특화 상품인 '우주패스 slim'을 론칭했다. 아마존 해외직구 무료배송 혜택과 아마존 해외직구 5000원 할인 쿠폰 1매, 11번가 SK페이 2000포인트 등 약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월 2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마존 해외직구는 11번가 내 아마존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페이지 내에 있는 상품 구매 시 주문 금액과 횟수 상관없이 무료배송 혜택(일부 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아마존과 함께 현재 수천만 개에 달하는 아마존US 상품을 판매 중이다.

SK텔레콤은 다양한 구독 상품 가운데 온라인 쇼핑 혜택을 누리고 싶은 고객층을 위해 특화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주패스 slim 론칭으로 SK텔레콤은 지난달 선보인 생활밀착형 혜택 중심의 '우주패스 life'(월 9900원)를 포함해 '우주패스 all'(월 9900원), 'mini'(월 4900원) 등 4개의 구독 상품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구독 플랫폼 '유독'을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선택 제한·요금 부담·해지 불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구독할 수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배달·여가, 식품, 교육·오디오, 쇼핑·뷰티·미용, 유아, 청소년·반려동물 등 분야 31종이다. 이용 고객은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해도 매월 최소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선택할 경우 매월 최대 50%의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약정이나 기본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차가 탄소중립 월드컵을 위해 구성된 팀 센추리 멤버이자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BTS)이 '현대자동차 세기의 골 공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차

월드컵 응원하고 친환경 활동 공약하면 직관 기회가!

현대차 '세기의 골 캠페인'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세기의 골(Goal of the Century) 캠페인'의 일환으로 월드컵 경기 현지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2022 FIFA 월드컵' 고객 참여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기의 골 캠페인 메시지를 연계한 '현대자동차 세기의 골 공약'을 FIFA 공식 채널 'FIFA 플러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세기의 골 공약은 축구팬들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는 이벤트다. 참여를 원하는 사

람은 2022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 본인이 응원하는 국가가 득점할 경우 이행할 친환경 활동 공약을 제시하면 된다.

현대차와 FIFA는 응모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1명(동반 1인 가능)을 선정하고 당첨된 11인에게 본인 응원하는 대표팀의 조별예선(32강) 세 경기 중 한 경기의 티켓과 항공·호텔 등이 포함된 직관 패키지를 제공한다. 직관 패키지에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2022 월드컵 기간 동안 공약을 이행하고 이를 SNS에 업로드 후 해시태그를 하면, 추첨을 통해 스티븐 제라드 사인 유니폼 등 캠페인 굿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차는 세기의 골 캠페인의 일환으로 9월 30일까지 전 세계 41개국의 법인

및 대리점에서 아이오닉 5 등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시승회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전국 현대차 드라이빙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시승 프로그램과 연계해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면 현대차 시승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승회 참여 후 팀 센추리 서포터즈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41개국 100명(동반 1인 가능)을 선정해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조별예선 경기 티켓과 항공권, 호텔 투숙권, 가이드 투어 등이 포함된 관광 패키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삼성전자, 갤럭시폰 '수리 모드' 공개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수리 모드' 서비스를 공개했다.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게 해, 사실상 폐기 등을 통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접근이나 유출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케어' 메뉴 중 수리 모드를 실행하면 스마트폰이 재부팅 된다. 이후에는 사진과 메시지, 계정 등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기본 설치 앱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수리가 끝난 뒤 패시워드 인식 등을 거쳐 사용자가 '수리 모드'를 종료하고 재부팅하면 다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우선 '갤럭시S21' 시리즈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리 모드'를 도입하고, 추후 일부 다른 기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로나민C 나이트 아웃 팝업존 운영



오로나민C가 29, 30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홍대 인근 KT&G 상상마당에서 '오로나민C 나이트 아웃'(사진) 팝업 체험존을 운영한다. 29일 하하와 스킵, 30일 디펜스가 공연하며, 30일 오후 8시30분에는 오로나민C 모델인 박세리의 팬 사인회를 연다. 또 오로나민C의 멀티버타인 속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임, 포토부스, 시음 행사 등을 마련했다. 김아련 오로나민C 브랜드 매니저는 "소비자가 오감으로 멀티버타인 오로나민C 브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기획했다"고 했다.

편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